2.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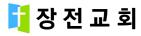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신 것들을 하나, 하나 세어 봅시다. 좋은 가정과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환경과 건강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짜이다"라고 하십니다. 공항 출입구에 들어갈 때에 몸에 탐지기를 대고 검사하듯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감사의 제사로 그 문을 들어가야만 합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음 이 후의세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감사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4. 성실하심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사람은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듯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 변치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니?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7절



वापम देस

묵	도		사	호	자
찬	송	·····································	다	같	0
기	도		가	족	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족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분주한 일상으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들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메.

성경봉독 ………시편 100:1~5(구약 p.875) ……… 다 같 이

-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설	교	·····································	0
기	도	·······사 회	자
찬	송	···················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 같	0
추	모	·······사 회	자
		1고인의 유언 회상	
		2생존 시 있었던 에피소드, 덕담	
		3가족에 대한 가장의 교훈의 말	
폐	회	사 회	자

제목 /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본문 / 시편 100편 1~5절

오늘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추석입니다. 추석이란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면서 풍성 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친지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1절),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2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찌어다"(4절)고 세 번이나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 얼굴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며, 확신 있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1. 먼저 즐거이 외치라고 하십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라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1절은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감사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 해맑은 웃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